

인터뷰

어머니의 바람, “더는 아들과 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길”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억울하게 간 우리 아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더는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권대희법’ 제정에 동참해주세요.”

경희 구성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대학주보를 찾았다는 사람이 있다. ‘공장식 성형 수술’ 피해자로 숨진 고(故) 권대희 씨의 어머니 이나금 씨다.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던 고(故) 권대희 씨는 지난 2016년 학창 시절 받았던 신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를 찾았다. 평소 검소하고 꼼꼼한 성격을 지녔던 권 씨가 두 달 동안 강남 일대 유명하다는 성형외과를 직접 돌아다니며 끝에 선택한 병원은 ‘14년 무사고’를 자랑했던 모 병원이었다. 학교에 다니며 조금씩 아껴 모았던 돈 650만원은 모두 안면윤곽을 위한 수술비로 들어갔다. 병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직접 책임진다고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권 씨의 어머니가 직접 얻어낸 수술실 CCTV 영상에는 참담한 실태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약속된 집도의인 원장은 다른 수술방에서 동시간대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간호조무사들은 화장을 고치거나 휴대폰을 보더니 흘러내리는 권 씨의 피를 대걸레로 닦았다. 결국 제대로 된 지혈도, 수혈도 없이 권 씨가 흘린 피의 양은 3500cc가 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 따르면 사인은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였다.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된 유가족은 결국 병원과의 소송을 택했다. 권 씨 어머니는 “특히 성형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 유사한 피해를 또 당하지



권 씨 어머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권대희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소송과 법 제정은 앞으로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고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방지 위해 시작

않을까 걱정됐다”며 “소송과 법 제정은 이후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는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됐고 항고마저도 기각되는 등 상황이 마음처럼 흘러가고 있진 않다”며 “CCTV 영상이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이렇게 비참한 마음으로 소송에 임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가족 죽음의 진실을 밝힐 엄두도 낼 수 없으니 정말 아떨까 싶다”고 말했다.

권대희 씨 관련 소송에서 민사 재판은 병원 측 배상책임을 80% 인정하는 1심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형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간호조무사들의 지혈행위는 의사의 지시, 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병원 측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제출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30분가량 단독으로 지혈한 행

위를 두고 의사의 지배하에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감정서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가족 측이 이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접수하기도 했지만, 서울 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이 씨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권대희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과 같이 수술실 CCTV가 마련돼 있지 않은 의료사고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조작 여부 가능성 △법적 형평성 등의 문제로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권 씨의 어머니는 “실질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전혀 다른 의사가 집도하는 유령수술이나, 집도 의사가 다른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나가는 공장수술로 아들 대희 역시 이것이 주 사망 원인이었다”며 “CCTV 설치가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수술과정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그로 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당시 CCTV를 공개하고, ‘권대희법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인터넷 성형 카페에 관련 글을 게시하는 등 공론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권 씨 어머니는 “‘닥터 벤데타’라는 내부고발 유튜브가 말하듯 성형외과의 공장식 수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라며 “그런데 피해자들도 성형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여러 사건이 묻히다보니 이런 문제가 관행처럼 굳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려 애쓰는 이유다.

대학주보와의 만남을 희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론화를 시키고자 마음먹고 가장 먼저 아들이 다녔던 학교가 생각났다”며 “공론화를 위해 손을 모아주길 부탁하면서도 아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형의 위험에 대해 말하고 싶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쩌면 부정적으로 보일 사안에 학교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불편할지 몰라 학교를 밝히는 것을 꺼렸었다”며 “그러나 공장식 수술 피해자가 더 이상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니 부디 힘을 보태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사고가 있었던 2016년 당시 이 씨는 한창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아들을 키우며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하는 일에 대한 꿈을 갖게 됐다”며 “그리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고 석사 수료와 동시에 박사 과정을 앞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이 씨의 계획은 무너진 상태다. 현재 권대희법 제정을 바라는 이 씨는 “뒤편은 꿈도 좋지만 소송을 경험하며 솔하게 비참함을 느꼈기에 이후에는 그들을 돕는 삶을 살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0학년도 1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다전공 신청 및 포기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 및 포기기간: 2020. 4. 16(목) ~ 4. 22(수)
- 2. 신청대상: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가. 국제캠퍼스 학생 중 서울캠퍼스 전공을 다전공 신청하는 학생도 동일하게 신청함
나. 서울캠퍼스 학생 중 국제캠퍼스 전공을 다전공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제 학사 지원팀 안내문 참조
다. 다전공은 제3전공까지 신청할 수 있음(본인의 전공 외에 2개 전공의 다전공 가능)
라.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8학기 초과자는 다전공 신청을 할 수 없음
- 3. 다전공 선발 인원
가. 전년도(2019학년도) 입학정원의 30% 이내 인원
나. 경영학과는 전년도 입학정원의 30% 이내 인원을 서울, 국제 캠퍼스별로 각각 선발함
다. 연간 선발인원으로 1학기 선발 후 잔여인원을 2학기에 선발함
라. 학부 내 다전공 신청자와 연계전공 신청자는 인원 제한 없음
- 4. 다전공 선발 기준: 성적, 학업계획서, 면접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별로 선발함
가. 경영대학 다전공 신청 자격기준
- 경영학전공: 전학년 평점평균 3.3이상,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 자
- 회계·세무학전공: 전학년 평점평균 3.0이상, 〈회계원리〉, 〈경제학원론〉, 〈경영통계학〉 또는 〈통계학〉 과목을 이수한 자
나. 다전공 선발 학과
1) 다전공 이수하는 문과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이과대학, 생활과학대학, 국제캠퍼스 소속 대학에 설치된 전공을 대상으로 함. 단, 폐지된 전공,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와 국제캠퍼스 소속 전공 중 다전공 이수가 금지된 전공은 제외함
2) 다전공 신청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 학과(부) 편제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졸업 시에는 편제변경에 따른 교과조치에 따라 전공명이 변경될 수 있음
다. 다전공 이수금지 전공

학생소속	서울캠퍼스 설치 전공	국제캠퍼스 설치 전공
서울 캠퍼스	의·약학 계열, 간호과학대학, 예·체능계열, 자율전공학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영미어문전공/영미문화전공, 동서의과학과

국제 캠퍼스	의·약학 계열, 간호과학대학, 예·체능계열, 자율전공학과, 문과대학 영어학부 영어학/영문학/통번역 학전공,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과	동서의과학과
--------	---	--------

- 5. 다전공 신청방법
가. 경희대학교 포털 → 학적 → 전공 → [전공·트랙신청] → 하단 다전공신청 → 다전공 검색 후 신청 → 지원사유 작성 → 신청 클릭
※ 학부편제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 중 제1전공이 신청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제1전공 신청 후 제2전공 신청을 진행해야 함
2) 신청한 본전공 및 다전공에 대하여 트랙 신청이 가능함(2개 트랙까지 신청가능)
3) 전공 신청정보에 “신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 신청정보에 “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 6. 다전공 포기 안내
가. 대상: 이수 중인 다전공의 포기를 희망하는 재학생
나. 포기방법
1) 경희대학교 포털 → 학적 → 전공 → [전공·트랙신청] → 포기대상 전공 폐지기 → 전공포기 클릭
2) 전공 신청정보에 “취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
다. 유의사항
1)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다전공 포기를 한 경우, 다시 다전공을 이수하려면 새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포기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2) 편제가 개편되어 다전공을 포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사지원팀(961-0053~4)로 문의바람

- 7. 다전공 승인 및 포기 확인 기간: 2020. 5. 1(금) 예정
가. 확인방법: 경희대학교 포털 → 학적 → 전공 → [전공·트랙신청] → 승인내역 확인
나. 유의사항: 다전공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전공 과정을 이수할 수 없음
※ 다전공 관련 세부 문의는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2020학년도 1학기 본전공(제1전공) 선택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본전공(제1전공)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학부로 입학한 학생 중 제1전공이 신청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2020. 4. 16(목) ~ 4. 22(수)
- 2. 신청대상
가. 학부(과) 단위 입학생 중 세부전공 신청을 희망하는 재학생
1) 해당학부: 영어학부, 법학부, 사회과학부, 언론정보학부, 언론정보학과(2010학년도 입학자), 경영학부, 호텔관광대학 소속 학부, 생활과학부
2) 예외학부: 전공배정제와 전공확정제를 실시하는 학부, 자율전공학과, 미술학부, 무용학부

- 3. 신청방법
가. 경희대학교 포털 → 학적 → 전공 → [전공·트랙신청] → 전공배정신청 클릭 → 지망전공 선택 후 ‘신청’ 버튼 클릭
나. 신청한 본전공(제1전공)에 대하여 트랙 신청이 가능함
다. 본전공 신청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 편제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하며, 졸업 시에는 편제변경에 따른 교과조치에 따라 전공명이 변경될 수 있음

- 4. 유의사항
가. 본전공(제1전공)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나. 매 학기 본전공 신청기간에 신청한 전공을 변경할 수 있음
※ 본전공 관련 세부 문의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2020학년도 1학기 전공 트랙교육과정 신청 및 포기 안내

“전공트랙과정”이란 학과의 교육과정 안에 마련된 전문화된 전공교육체제로, 학생들에게 재학 중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들을 일종의 계통도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학업 목표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랙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공에 대하여 전공트랙과정을 신청 또는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안내를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2020. 04. 16(수) ~ 04. 22(금)
- 2. 신청대상: 전공 트랙교육과정 신청 또는 포기를 희망하는 재학생
- 3. 대상전공
가. 트랙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본전공(제1전공)
나. 이수가 승인된 제2전공(또는 제3전공) 중 전공 트랙교육과정이 설치된 전공
- 4. 신청방법
1) 경희대학교 포털 → 학적 → 전공 → [전공·트랙신청] → 전공 세부목록 폐지기 → 트랙신청 클릭 → 트랙확인 후 신청 클릭
※ 유의사항
1) 전공 승인신청 시 함께 신청한 전공트랙은 전공 승인 불허시 함께 취소됨
2) 단과대학별로 트랙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3) 한 전공당 트랙은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함

- 4) 본전공(제1전공) 신청은 학생의 입학당시 모집단위에 한하여 선택가능하며, 졸업시에는 경희대학교 학적 → 교과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포기방법
1) 경희대학교 포털 → 학적 → 전공 → [전공·트랙신청] → 전공 세부목록 폐지기 → 트랙포기 클릭 → 트랙포기 사유 작성 → 포기신청 클릭
- 6. 유의사항
가. 승인된 전공 및 트랙과정은 해당 교육과정에 맞추어 이수해야 함
나. 매 학기 트랙 신청기간에 신청한 트랙교육과정을 변경 및 포기가 가능함
다. 트랙교육과정을 승인받고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졸업이 불가능함
라. 각 전공별 트랙과정의 세부 이수요건에 관해서는 학과별 교육과정 시행세칙 또는 붙임 전공별 트랙교육과정 이수 안내를 참고하기 바람
※ 트랙교육과정 관련 세부 문의는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